

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

신문사를 만든 뜻

우리가 신문사라는 방향을 세우고 가는 것은,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이키게 돌아가는 이 마음의 도리를 깨닫게인 지적 실천하고 수행하여 세계적으로도 모두 알게 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.

어떤 사람이 이 신문을 보고 “아, 이렇게 해야 되는데구나.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.” 해서 마음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인해 그 한 집안에 이익이 가고 공덕이 되어서, 율편서 살아야 할 것을 웃으면서 살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보살행이 됩니다. 신도들만 보라는 것도 아니고 불교 신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좀 권해서 그 사람이 한 줄의 글이라도 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

불자 여러분은 받길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자동적인 전등을 들고서 앞장서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. 정신계의 개발을 통해서 불교를 숭상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줄 수 있는 실천 수행자로서의 길을 패기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.

대행스님 범훈록 「그냥 무조건이야」 중에서

대한불교조계종 한 마음 선원

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

본원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-62 중무소 031)470-3100
<http://www.hanmaum.org>

원 장 대 행
주 지 혜 원
사부대종일동

